

법회 안내

약수사(051)555-4332
 인동기도 1~3일(음) 오전10시
 조상천도 18일(음) 오전10시
 공덕월(051)625-2253
 지장천도 매월14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주 화 오전11시
 지장불교대학의 매주 수
 오전10시30분
 대령 심인당(053)625-6627
 자성인불교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창년·학생법회 매주 일 낮12시
 원초불교 매월 첫째 월~일
 오전10시
 구화사(053)323-498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보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초발심자경문 및 지장경장의
 매월18일(음) 오전11시
 금강경강의(박삼중스님)
 매월24일(음) 오전11시
 청평사(0361)54-1092
 일반신도법회 매월1, 15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정법사(0361)262-1085
 일반신도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삼운사(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살화법회 셋째주 일 오전11시
 매주 토 오후5시
 정기법회 매월 21일 오전10시30분
 일반신도법회 토 오후8시30분
 용덕사(0371)41-3553
 일반신도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원각사(0398)62-5076
 학살화법회 매주 토 오후2시40분
 근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일반신도 백상화법회 매월1, 15,
 18, 24일(음) 오전10시
 정법사(0395)81-7464
 인동기도 매월 7일 오전11시
 영각사(0345)498-770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인지기사법회 불제 화 오전11시
 구암사(02)877-2378
 초하루법회 매월1(음) 오전10시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반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성지순례 매월 1회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할·단
 체는 전화(02-722-4162) 팩스
 (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속의 자연사랑 일깨워야조”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 2대회장 성 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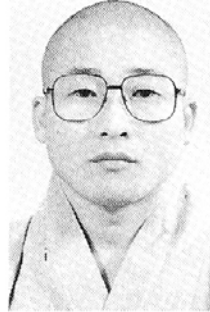
“불교환경운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입니다. 종 단차원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생활속에서 실천 하는 운동으로 제도하는 역할을 해야지요”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이하 공추불) 제2대 회장에 선출된 성타스님(조계종 포 교원장)은 환경운동이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하에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성타스님은 92년에 불교계 최초로 창립된 공추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특색을 정 하지 못해 왔으며 빠른시일



내로 방향을 정립하여 본격 적인 환경운동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과공해의 급증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자연사랑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96 자연사랑 환경 포스터와 글자기를 오는 1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다.
 또 △정경국도 한마당 △공추불 그린폰 개설 △환경 교실 △환경세미나 △환경 바자회등의 사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타스님은 현재 대구의

“백마디 말보다 한번 배움이 나아”

10년째 소년가정에 장학금 지급 범 경 스님



“부처님 가르침은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보살행을 필

필 때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지난 85년 서울 성수동에 포교당을 개설한 이래 10년째 소년소녀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범경스님은 “불교는 곧 보살행”이라고 강조한다. 으뜸된 가르침으로 법을 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더 큰 가르침은 배움에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에도 일일치장을 열어 30명의 소년소녀가정에게 6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

다. 올해에는 5월10일 농민정사 지하차점에서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누는 ‘거룩한 인연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불자가수 김홍국씨와 심진스님을 초청, 음성공양을 올리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사람이 자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확실히 책임지는 풍토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신도들의 신심도 그만큼 커질겁니다.”



부산일보 강당서 법문

서암스님 (전 조계종 종정)은 오는 4일 오후 6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법회를 개최한다.

4월 20일 동승동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결의대회’에 참석, 탑골공원까지 행진했다.

조계종 월주스님 예방

이나마루에 수만길라 스님(한·스 불교우호회 회장·스리랑카 담불라 승단 승정)은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환담을 나눴다.

고려대장경연구 법인등록

종림스님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4월 15일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유해환경 추방대회 참가

현성스님(사)청교련 회장은

시명대사 춘계행사 봉행

신허스님(표총사 주지)은 4월 20일 임진왜란때 승병을 모집,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 5백5

회 춘계행사를 표총사에서 봉행했다.

불교TV 전우이사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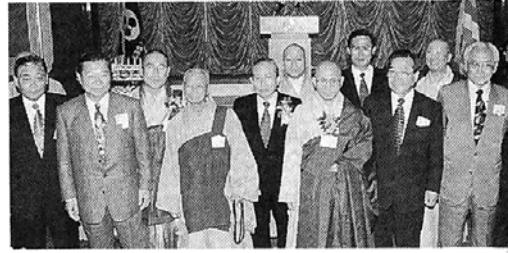
정우스님 (구공사 주지)은 4월 25일자로 불교TV 전우이사에 취임했다.

대승사 개원법회 가져

법성스님 (대승사 주지)은 4월 20일 월주스님, 함정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승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문화의 길’ 강연

고은씨(시인·분지 논설고문)은 오는 6일 오후 4시30분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문화의 길’을 주



불교방송 조해형사장 취임 리셉션

불교방송 창사 6주년 및 신임 조해형사장 취임기념 리셉션이 4월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발방총이사장 종하스님을 비롯



동국대 경주병원 증축 기공식

동국대 경주병원(원장 서정욱)은 4월 17일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 이원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대강당에서 증축 기공식을 거

“바른 불교용어 보급 기여했으면”

‘불교방송 언어교본’ 발간 이선미 아내운서 부장

“불교방송 아내운서는 올바른 우리말의 보급자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이 교본을 제작했습니다.” 불교방송 아내운서 부가 1년여의 준비끝에 발간한 ‘불교방송 언어교본’ 제작의 총책임은 맡은 이선미부장의 말이다. <불교방송 언어교본>에는 일반방송언어의 요건과 발음, 방송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을 비롯 자주 쓰이는 불교용어, 주제별 용어, 불교용어 바로읽기, 틀리기 쉬운 한자용어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이 책은 불교용어의 대중화에 한 몫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은>

제모 강연한다.

일각경 강론 출판기념회
 만성스님(부산 해동선원장)은 <일각경강론> 출판 기념법회를 오는 3일 오후8시30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갖는다.

정각선원 개원1년 법회

권익현의 원(국회정각회장은 4월 29일 국회 정각선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는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을 법사로 초청한다.

군승 후보생 입대전 교육

김남석법사(군승단 단장은) 4월 20일 호국원 공사에서 군승 후보생 입대전 교육 회현법회를 가졌다.

정원노인 요양원 위문

구자순회장(대한불교 부인회)은 4월 23일 경기도 파주 정원노인 요양원을 방문, 영가천도제 및 위문 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총무원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월주, 사 대우전에서 가졌다. 총무원 청사 현관에 설치된 장애인용



자비의전화 개통 6주년 법회

자비의전화(회장 정덕) 개통 6주년 및 이전 기념법회가 4월 24일 인사동 자비의전화 교육관에서 봉행됐다. 일면스님(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 해원스님(한미음선원 주지), 정성스님(전국비구회 호법부장), 인동 일 변호사와 상담원들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정덕스님은 “중생의 고통과 함께하는 자비의전화가 되자”고 당부했다.



영암 도갑사 정신대할머니 초청법회

영암 도갑사(주지 도현)는 4월 18일 정신대할머니 20여명을 초청, 위안법회와 탑돌이를 했다. 또 이날 영암군청 직원부 영암군 13개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도갑사에서 행사를 가진 뒤 19일에 왕인박사 유적지와 선사유적지 목포 한라조선폭포를 방문했다. 도갑사와 영암군청, 인들의 모임인 초록회가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생활속의 불교 ㉓

네 말도 옳고 또한 내 말도 옳다

조선조 세종 때의 황회 정승은 드물게 보는 공직자의 귀감으로 손꼽힌다. 어느 때 그에게 시비를 가려 달라는 청원이 들어 왔다. 한쪽 말을 다 듣고 나서 황정승은 “자네 말이 옳다”며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다른 쪽이 거세게 항변을 했다. 황정승은 다시 “자네 말도 옳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양쪽의 주장을 다 인정한 것이다. 이른바 양시론(兩是論)이다.

요즘 사람들은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딱 부러진 선택을 좋아한다. 둘 다 옳다는 것은 형편 없이 죽어 있는 사람, 또는 회색 분자의 몹이라고 생각한다. 소신 있고 실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란 적어도 어느 쪽이 옳은지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어 좋지 않느냐는 식이다. 그들은 한결 같이 양시론이라면 필적 뛰며 배척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변성,

개연성 위에서 있다. 모든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번 일어난 일들이 화석처럼 딱 굳어져 있다면 선택은 쉬울지도 모른다. 반면 상황이 늘 변하고 있다면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나하면 한 순간에 옳다고 본 것이 다음 순간에 그른 것으로 보이는 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모든 사물의 실상을 ‘다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개연성, 가변성을 외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까닭에 이른바 선택이란 ‘올바른 것 고르기’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 고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가 고른 것은 옳바른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산다. 그런 착각은 때때로 고집이 되고 소신이 되면서 양시론을 죽어 있는 연동으로 매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착각은 착각거리 박수를



치고 착각거리 편을 짜게 만든다. 세상은 그런 착각 때문에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각자의 삶은 그런 착각 때문에 고달파진다. 말이 많고 말이 많아지게 된다.

진정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모든 판단이란 사실 불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다.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고서야 완전한 지혜란 없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다. 양시론의 황회 정승 같은 사람이다. 흑이나 백이나의 단정이 결국은 망상·분별. 착각인 줄을 아는 사람이다. 네 편 네 편이 따로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옛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으나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도는 절로 탁 되며 대낮 같이 환하니라’ 하셨다. 분별하면 통달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셨다. ‘바른생각’ ‘바른 언동’ ‘바른 마음’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건 네가 옳고 저것은 내가 그르다는 식으로 갈라 놓는다면 갈수록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상의 조화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 세상엔 작은 나무가 있으므로 큰 나무가 있고 높은 게 있음에 낮은 것이 있다. 바로 상대성이요, 서로 돕는 상보성(相補性)인 것이다. 그것을 무시함은 조화를 무시함이고, 세상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황회 정승의 양시론은 바로 그 상대성을 설파한 것이다. 시비 분별을 떠나 양쪽 모두를 수용하는 게 불법에 이르는 길이다.

협찬 : 한 용 수